

Fitch사 멕시코 국가신용등급 한 단계 내려

□ Fitch사, 멕시코 외화장기신용등급 **BBB+**에서 **BBB**로 하향 조정

- Fitch사는 11월 23일, 멕시코에 대한 외화장기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내렸으며, 신용등급전망은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하는 한편, 폐소화 장기신용등급도 기존 A에서 A-로 조정했다고 발표함.

□ 글로벌 경제 위기와 정부 세수 감소 등이 하향 조정 요인

- 신용등급 하향 조정사유로는 ① 글로벌 경제 위기, ② 원유 생산량 감소로 인한 정부 세수구조 악화, ③ 비석유부문 세수기반 취약 및 재정 유연성 저하, ④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재정 투입으로 인한 정부재정 악화 등을 들었음.

□ 최근 원유수출수입 감소가 정부 재정 악화 가속화

- 동국은 공공부문 세수의 35%를 차지하는 원유수출수입이 올해 원유가 하락 및 생산량 감소로 인해 심각하게 줄어들음. 참고로 원유생산량은 2004년 일산 3.4백만 톤에서 현재 2.6백만 톤으로 감소했으며, 특히 정부재정에 크게 타격을 준 2008년도의 경우 전년대비 9%나 감소함.
- Fitch사는 2008년의 에너지개혁이 원유생산량 감소를 타개하기 위한 충분한 확신을 주지 못했다고 언급함. 비록 PEMEX(멕시코 국영정유회사)가 내년에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인센티브에 근거한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는 하나, 민간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의 시기나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함.

□ 멕시코, GDP대비 세입 비중 18%로 매우 낮아

- 멕시코는 최근 세수 확대를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비석유부문 세입이 2012년까지 GDP 대비 12% 수준으로 점진적 상승이 예상되는 한편, 원유관련 세입이 전체 세입의 30%를 넘고 있음.
- 반면, 다른 동급 국가들의 평균 총 세입은 2008년 기준 36%인데 반해 멕시코는 18% 수준에 머물고 있음.

□ 멕시코 경제성장 속도 다른 나라보다 더뎠

- 멕시코 경제성장률은 최근 5년 평균 3.4%로 동급의 여타국 평균 5.5%보다 낮으며, 올해는 약 7%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됨(여타국 -3% 수준).

□ 멕시코 공적채무, 동 등급권내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

- 멕시코 공적채무는 2009년에 GDP의 3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같은 등급의 여타국가 평균 수준보다 높으며, DTI(총부채상환비율)도 매우 높은 수준임.

□ 멕시코 금융부문 및 대외채무관리 등은 안정적

- 멕시코의 상대적 금융부문 건전성, 탄력적 대외계정 현황, 국가대외채무의 관리, IMF의 탄력적신용한도(FCL) 등은 동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케 함.
- 그러나 최근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를 이용한 외환시장 개입으로 인해 감소된 동국 외환보유고 확대가 필요함.

□ Fitch사, “멕시코 구조개혁 강도 높여야”

- Shelly Shetty 국가신용등급담당 선임국장은 최근 의회에서 승인된 세계개혁안은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진입은 맞지만, 원유 생산량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세계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그러나 그는 향후 세수 확대를 위한 세제개혁 추진 전망은 현재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밝지만은 않으며, 이는 2010년 대선으로 인해 더욱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함.

- 또한 그는 멕시코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대외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석유부문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등 세제 개혁 추진을 지속하는 한편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멕시코시티 사무소 제공>